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5년 6월 15일(일)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르망24시> 참가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도전의 이정표 세워

- 프랑스 르망 지역 라 사르트 서킷에서 열린 르망 24 시 ‘LMP2 클래스’ 출전
... 르망 24 시 3 회 우승 경력 보유한 안드레 로테리 등 3 인의 드라이버 출격
- 현장 제조사 빌리지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모터스포츠 분야 로드맵 발표
... WEC 하이퍼카 클래스 정식 데뷔 위한 ‘GMR-001 하이퍼카’ 개발 상황 공개
... FIA, WEC 관련 경험 갖춘 핵심 인재 3 인 영입 통해 레이싱팀의 발전 도모
-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 모델 등 전시 및 10 년 간의 브랜드 히스토리 소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세계 3 대 모터스포츠 이벤트¹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대회인 ‘르망 24 시(24 Heures du Mans)’에 참가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간다.

제네시스는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이 프랑스 르망(Le Mans) 지역에서 현지시각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르망 24 시의 ‘LMP2(Le Mans Prototype 2) 클래스’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네시스는 르망 24 시 현장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모터스포츠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GMR-001 하이퍼카’를 유럽에 최초로 선보이는 등 유럽

¹ 인디애나폴리스 500, 포뮬러 원(F1) 모나코 그랑프리, 르망 24시



PRESS RELEASE

모터스포츠 팬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우리의 디자인 철학을 순수한 퍼포먼스로 승화시킨 집약체”라며, “유럽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는 지금, 마그마 레이싱은 단순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넘어 오랜 시간 자동차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유럽과의 깊은 교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 24 시간 이어지는 극한 주행...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경쟁력과 잠재력 선보여

1923 년 시작된 르망 24 시는 ‘내구 레이스의 기원’이라 불릴 만큼 오랜 역사와 위상을 자랑하며, 수많은 브랜드와 드라이버들이 참가를 염원하는 꿈의 무대다.

르망 24 시는 2012 년 FIA²가 주관하는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에 편입된 이후 WEC 의 가장 핵심적인 라운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르망 24 시 단일 대회 우승은 WEC 종합 우승과 비견될 정도로 그 위상이 단연 독보적이다.

르망 24 시는 24 시간 동안 세 명의 드라이버가 교대해가며 동일한 차량으로 13.626km 길이의 라 사르트 서킷(Circuit de la Sarthe)을 쉬지 않고 반복

²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국제 자동차 연맹



PRESS RELEASE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종료 시점에서 서킷을 가장 많이 돈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한 주행 성능뿐 아니라 24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내구성을 갖춘 차량 ▲드라이버 3인의 뛰어난 기량 ▲고도의 운영 전략 및 팀워크가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르망 24 시는 차량의 성격, 기술 규정, 출전 목적 등에 따라 ▲최상위 등급의 ‘하이퍼카(Hypercar)’ 클래스 ▲표준화된 새시와 엔진으로 기계적 차이를 최소화한 프로토타입 차량들이 경쟁하는 ‘LMP2(Le Mans Prototype 2)’ 클래스 ▲양산차에 기반한 다양한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출전하는 ‘LMGT3(Le Mans Grand Touring 3)’의 총 세 가지 클래스로 나뉜다.

이번 르망 24 시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운영 파트너인 IDEC 스포츠 (IDEC Sport)와의 협업을 통해 LMP2 클래스에 참가했다.

드라이버 3인으로는 르망 24 시 3회 우승 경력을 가진 안드레 로테러(André Lotterer)를 비롯해 지난 4월 르망 24 시 및 WEC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2025 시즌 유러피언 르망 시리즈 개막전 LMP2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 5월 ‘르 카스틀레(Le Castellet) 4 시’ 레이스에서 종합 우승을 거둔 제이미 채드윅(Jamie Chadwick)과 마티스 조베르(Mathys Jaubert)가 출전했다.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내구 레이스 운영 노하우와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고 드라이버들의 기량을 끌어올려 내년 WEC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를 위한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PRESS RELEASE

■ 르망 24 시 현장에서 모터스포츠 분야 로드맵 공개...외연 확장에 박차

제네시스는 르망 24 시 현장 제조사 빌리지(Manufacturer Village)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모터스포츠 분야 로드맵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과감한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

우선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에 탑재할 3.2L 트윈 터보 엔진 기반 레이싱 전용 신규 파워트레인의 내구 벤치 테스트³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GMR-001 하이퍼카는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의 결합을 통해 ‘고성능 럭셔리’에 대한 제네시스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GMR-001 하이퍼카는 LMDh⁴ 규격에 맞춰 제작될 예정이며,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로 내년도 WEC 하이퍼카 클래스에 정식 데뷔하고 그 이듬해에는 IMSA⁵ 주관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WeatherTech SportsCar Championship, WTSCC)에 출전할 계획이다.

³ 차량의 주요 부품이나 시스템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모의적으로 재현하여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⁴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Le Mans Daytona hybrid): WEC를 주관하는 FIA와 WTSCC를 주관하는 IMSA가 공동으로 만든 레이스카 제작 규정으로, 새시·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정해진 공급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함.

⁵ International Motor Sports Association, 국제 모터 스포츠 협회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프랑스 현지에서 레이싱 전용 신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테스트용 초기 차량 2 대를 제작해 오는 하반기 중 트랙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제네시스는 레이싱팀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새로운 핵심 운영진 3 인을 전격 공개했다.

▲FIA 및 GT 내구 레이스 관련 경험을 갖춘 아누크 아바디(Anouck Abadie)가 팀의 매니저를 ▲하이퍼카·LMDh 분야 경력을 지닌 저스틴 테일러(Justin Taylor)가 최고 엔지니어를 ▲월드 투어링카 컵 챔피언 출신인 가브리엘 타퀴니(Gabriele Tarquini)가 스포츠 디렉터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새롭게 영입한 3 인 및 시릴 아비테불(Cyril Abiteboul) 현대모터스포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 프랑수아-자비에 드메종(François-Xavier Demaison)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기술 디렉터를 필두로 내년 WEC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인 테스트 주행을 기점으로 실전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릴 아비테불 현대모터스포츠법인 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창설을 계기로 현대모터스포츠법인도 본격적인 모터스포츠 전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며, “법인 본사 및 주요 기술 센터의 이전을 통해 제네시스 유럽 법인과 협력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부품 공급처인 오레카(Oreca) 본사와 인접한 프랑스 르 카스틀레 지역에 차량 개발 및 정비 등을 위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전용 거점을 설립해 시너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RELEASE

■ “10 년의 여정에서 새로운 도약으로”...르망 24 시 현장 전시 부스 운영

제네시스는 르망 24 시 제조사 빌리지(Manufacturer Village)에 200m²(약 60.5 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브랜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였다.

특히, 유럽에 최초로 공개된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 모델은 한글 단어 ‘마그마’의 초성에서 착안해 한국의 정서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만의 리버리(Livery)⁶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네시스는 또한 엑스(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 등 마그마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콘셉트 모델들을 전시했으며, ‘브랜드 히스토리 월(Brand History Wall)’을 세우고 제네시스의 지난 10 년 간의 여정을 기술과 디자인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밖에도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을 위해 르망 24 시 및 마그마 한정 굿즈를 판매하고 일부는 이벤트 경품으로도 제공했다. [끝]

<사진설명>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 참가

⁶ 레이싱카 외관을 마감한 스티커 및 페인트 도장을 뜻하며, 주로 팀의 고유한 색상과 로고를 사용함



PRESS RELEASE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 3 대 모터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대회인 ‘르망 24 시(24 Heures du Mans)’에 참가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간다.

제네시스는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이 프랑스 르망(Le Mans) 지역에서 현지시각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르망 24 시의 ‘LMP2(Le Mans Prototype 2) 클래스’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사진 1) (왼쪽부터) 시릴 아비테불 현대모터스포르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MR) 총감독, 자비에르 마르티넛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 겸 제네시스 유럽법인장, 재키 익스 제네시스 브랜드 파트너 겸 GMR 레이싱 어드바이저, 현대차그룹 CDO 겸 CCO 루크 동커볼케 사장, GMR 스포츠 디렉터 가브리엘 타퀴니, GMR 최고 엔지니어 저스틴 테일러, GMR 팀 매니저 아누크 아바디가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 모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 2) (왼쪽부터) GMR 마케팅 매니저 워렌 쉼터, GMR 최고 엔지니어 저스틴 테일러, GMR 팀 매니저 아누크 아바디, 현대모터스포르츠법인장 겸 GMR 총감독 시릴 아비테불, GMR 기술 디렉터 프랑수아-자비에 드메종, GMR 스포츠 디렉터 가브리엘 타퀴니, GMR 드라이버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미아 샤리즈만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3~4) 르망 24 시 현장 제조사 빌리지(Manufacturer Village)에 마련된 제네시스 전시 부스의 모습

사진 5) 르망 24 시 LMP2 클래스에 참가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IDEC 스포츠(IDEC Sport) #18 차량의 모습